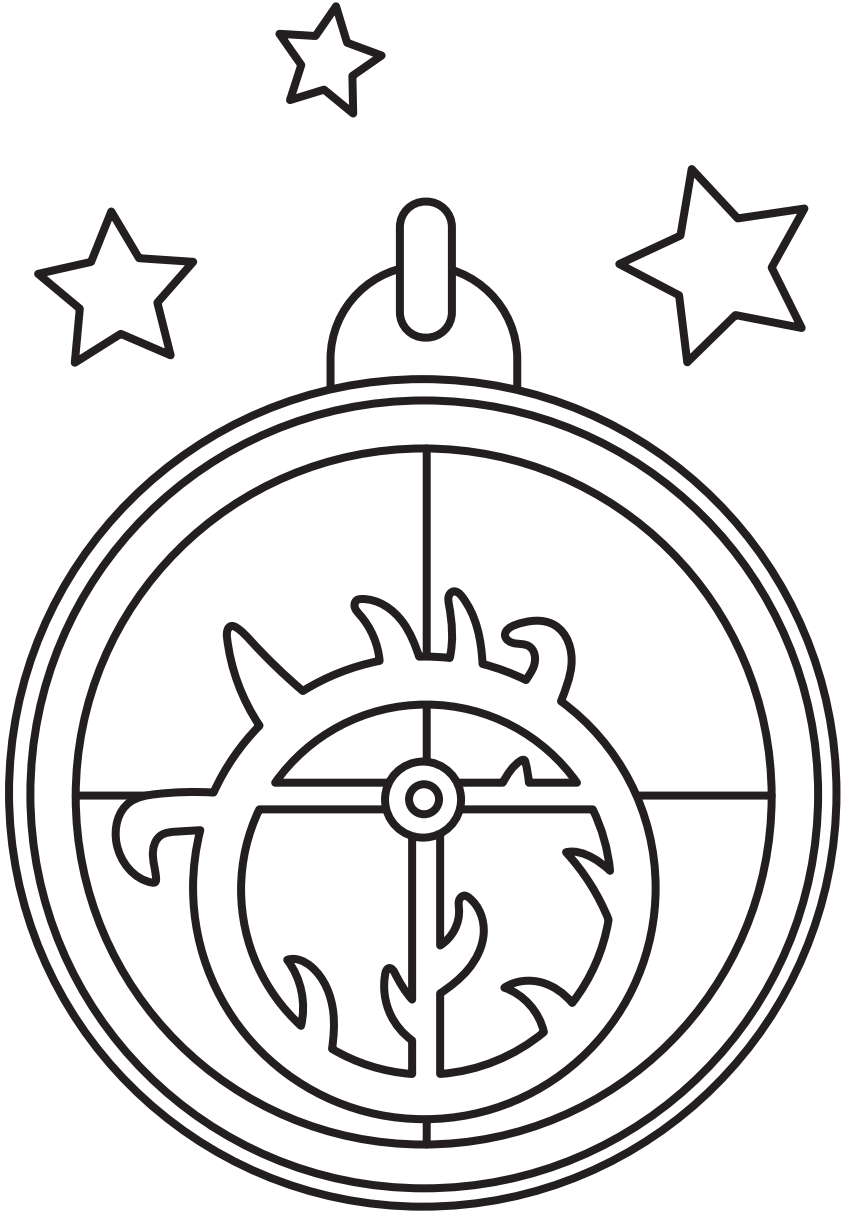


혼개통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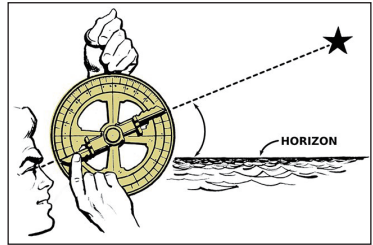


유금

유금(1741~1788)은 박지원, 홍대용, 이덕무 등과 교류한 북학파 실학자입니다. 평생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학문과 예술을 즐겼는데, 특히 **수학**과 **천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서재를 기하학의 기하를 따서 ‘**기하실(幾何室)**’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혼개통헌의

별의 위치와 시간, 경·위도를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휴대용 천문기구인 아스트로라브입니다. 아라비아에서 제작되기 시작해서 유럽으로 전해졌고,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혼개통헌의’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소개되었습니다. 유금의 혼개통헌의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제작된 것으로는 현재 유일합니다. 동아시아 특히 조선시대 서양 근대 과학의 전래와 발전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로 2019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되었습니다.



관측법

혼개통헌의 더 알아보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① 위쪽 고리에

이라는 인장이 있어 유금이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북극 출지 38도(한양의 위도) 건륭 정미(1787년)에 약암 윤선생을 위해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어 제작연도도 알 수 있습니다.

②

: 앞면의 구멍 뚫린 판으로,

돌려가며 원반에 새겨진 눈금선을 통해 천체 값을 얻습니다. 11개의 지성침은 각각 특정의 밝은 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